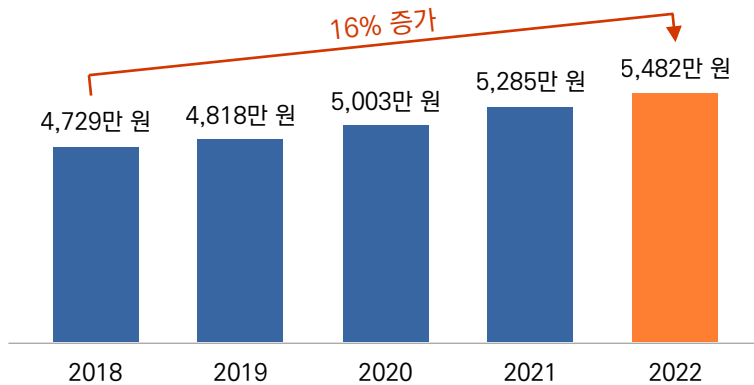




## 2022 우리나라 가구 소득, 코로나 기간 중에도 꾸준히 증가!

- ▶ 매년 12월에는 통계청에서 '가계금융복지조사' 결과를 발표하는데 가계의 자산, 부채, 소득, 지출 등을 통해 가정 경제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. 이번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가구당 처분가능소득\*\*은 5,482만 원으로 조사됐다. 가구 소득에서 실질적으로 소비나 저축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을 뜻하는 '처분가능소득'이 2018년보다 16% 증가했으며, 지난 5년 동안 코로나 기간을 거쳐 오면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가구당 처분가능소득\*\* 연도별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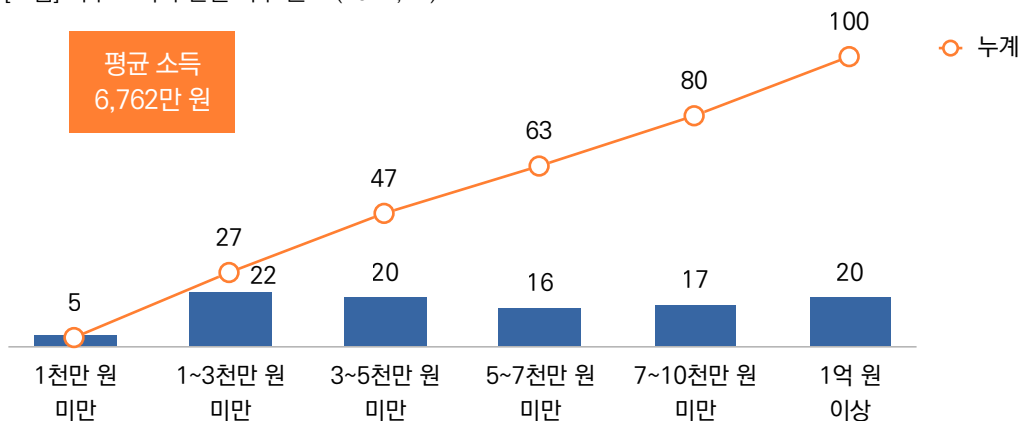
\*자료 출처 : 통계청,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, 2023.12.07.

\*\*처분가능소득= 소득(근로/사업/재산/공적이전/사적이전소득) - 비소비지출(세금,공적연금·사회보험료, 가구간이전지출, 이자비용 등)

### ◎ 우리나라 연 가구 소득 1억 원 이상, 5가구 중 1가구!

- ▶ 2022년 기준 가구 소득 구간별 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'1~3천 만 원 미만'이 22%로 가장 높았고, 절반 가까이(47%)는 '5천 만 원 미만'으로 2022년 평균 소득인 6,762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▶ 한편 연 가구 소득이 '1억 원 이상'인 가구도 5가구 중 1가구(20%)에 달했다.

[그림] 가구 소득 구간별 가구 분포 (2022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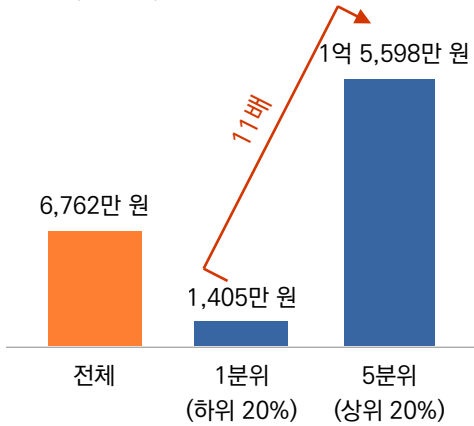


\*자료 출처 : 통계청,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, 2023.12.07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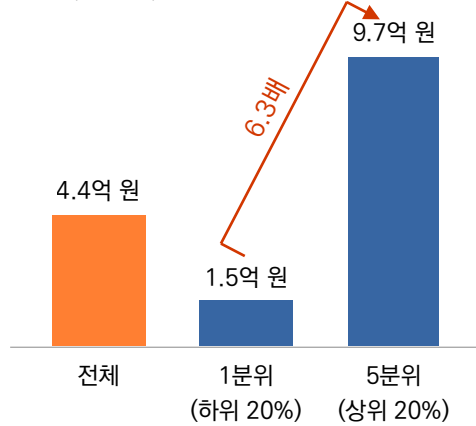
## ◎ 우리나라 상위 20%와 하위 20%의 가구 소득 격차, 11배 차이!

- ▶ 우리나라 가구의 연간 가구 소득과 순자산을 상위 20%와 하위 20% 간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. 우선 2022년 기준 연 가구 소득 상위 20%는 1억 5,598만 원, 하위 20%는 1,405만 원으로 11배나 차이를 보였고, 전체 가구 소득 평균인 6,762만 원 대비 상위 20% 가구는 2.3배 더 소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.
- ▶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경우 2023년 전체 가구 평균이 4.4억 원이었는데 이를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상위 20%는 9.7억 원, 하위 20%는 1.5억 원으로 순자산 또한 상/하위 20% 간 6.3배 정도의 큰 격차를 보였다.

[그림] 연 가구소득: 소득 상위 20% vs 하위 20% (2022년)



[그림] 순자산: 소득 상위 20% vs 하위 20% 순자산 (2023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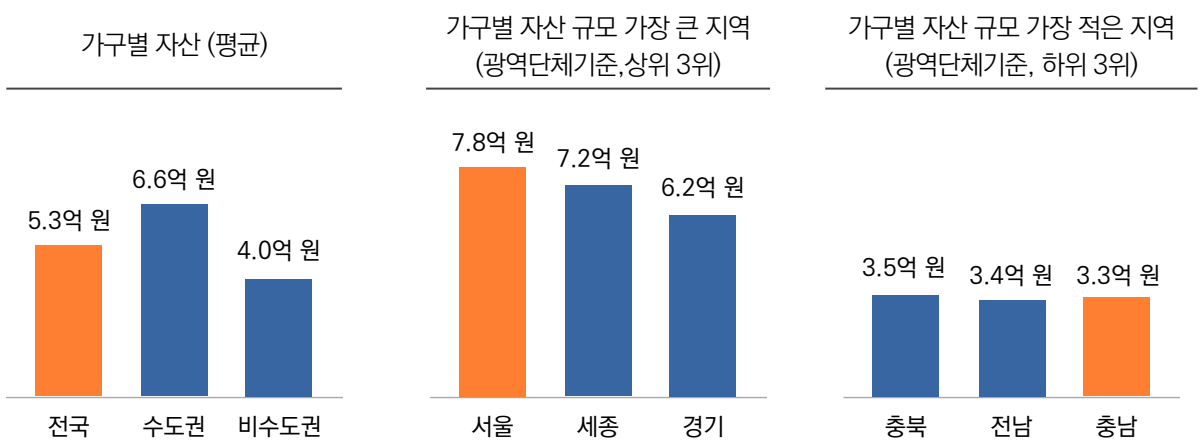


\*자료 출처 : 통계청,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, 2023.12.07.

## ◎ 수도권-비수도권 간 자산 격차, 1.6배!

- ▶ 지역별 가구별 자산 규모를 살펴보았다. 먼저 수도권, 비수도권 간 가구별 자산 규모를 비교한 결과, 전국 평균은 5.3억 원이었고, 수도권이 6.6억 원, 비수도권 4.0억 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산 격차는 2.6억 원가량으로 나타났다. 수도권이 비수도권 대비 1.6배 정도 더 자산이 많은 셈이다.
- ▶ 지역별로 보면 가구별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시/도는 '서울(7.8억 원)'이었고, 반면 자산이 가장 적은 지역은 '충남(3.3억 원)'이었다.

[그림] 지역별 자산 규모 비교 (2023년 3월 말 기준)



\*자료 출처 : 통계청,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, 2023.12.07.